

일본의 역사

22201938 이종현



목차

1. 조몬 시대
2. 야요이 시대
3. 고훈 시대
4. 아스카 시대
5. 나라 시대
6. 헤이안 시대
7. 가마쿠라 시대

I

-
- 8. 겐무
 - 9. 남북조시대
 - 10. 무로마치 시대
 - 11. 센고쿠 시대
 - 12.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 13. 에도 시대
 - 14. 메이지 시대

-
- 15. 다이쇼 시대
 - 16. 쇼와 시대
 - 17. 헤이세이 시대
 - 18. 레이와 시대

조몬 시대

- 조몬 시대의 '조몬'은 조몬 시대의 토기를 장식한 새끼줄 문양인 '승문'(일본말로 조몬)에서 나온 말
- 기원전 1만 년 즈음 해수면 상승 때문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완전히 분리됨.
- 거주 문화로는 수혈주거지라 해서 땅을 파서 5~6명 단위의 가족 생활을 함.
- 종교는 초기 신토를 믿었다고 하며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에 바탕을 둠.
- 조몬인들은 금속 제련 기술이 없었고, 후에 유입된 도래인이 청동기와 철기 제련 기술을 전파함. 또한 도래인이 유입되기 전에는 농사를 짓는 기술도 없었음.

조몬 시대의 대표적 유물, 유적들

- 패총: 도쿄 치바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었는데 후쿠이현 도리하마 유적과 아오모리 현 산나이마루야마 유적이 유명
- 조몬 토우: 얼굴에 차광기(흔히 '고글'이라고 부른 것)를 쓴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차광기 토우'(샤코우키 도구우)라고도 부름. 독특한 외관 때문에 일본 대중문화에서도 자주 패러디됨(예: 디지몬 시리즈의 토우몬 포켓몬스터의 점토도리 등)



야요이 시대(弥生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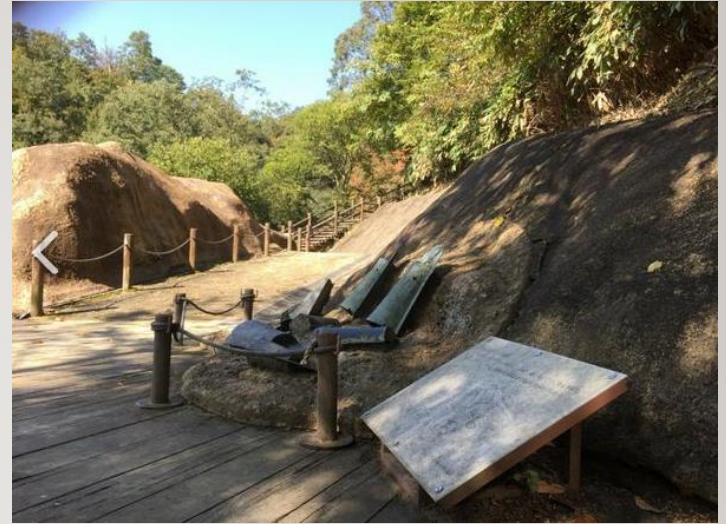
- 일본의 청동기 시대이자 철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
- 야요이 시대의 시작 연대는 2000년대까지는 기원전 4세기로 보는 설이 일반적
- 고분을 짓기 시작하고 청동제 무기, 제구가 출현했으며 안정적인 수경 경작이 가능해지는 등 이전 시대였던 조몬 시대에 비해 급격하게 문명이 발전함.

야요이인

- 야요이 시대를 연 야요이인은 고대 한반도에서 금속 문화와 농경 문화를 보유한 높은 조몬인 유전자를 지닌 집단으로 추정
- 특히 주거지, 토기, 묘제 등 고고학적 지표로 보면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송국리 문화 및 이후의 세형동검 문화와 여러가지 문화요소들을 공유함. 그래서 한반도 주민들 중 일부가 직접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토착 죠몬인들과 결합함으로써 야요이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 고대 일본어, 한국어 연구의 권위자였던 언어학자 알렉산더 보빈은 살아생전 반도 일본어설을 제시하며 일본어족 계통의 언어가 고대 한반도 중남부에서 쓰였고 고일본어족 화자들이 남하하는 부여어족 계통의 집단에게 밀려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각각 형성되었다고 주장.

야요이 시대의 유물과 유적

- 야요이 시대의 유물은 한반도의 유물과 비슷하여 야요이 시대의 석기는 형태, 석재가 한반도의 것과 동일했으며, 철기 및 청동기 역시 거의 동일한 모습을 띠며. 또 한반도에서 가까운 북규슈와 서남쪽 혼슈 지방을 중심으로 야요이 문화가 전개됨.
- 야요이 시대의 대표적 유적들로는 후쿠오카현 이타즈케 유적, 시즈오카현 도로 유적, 시마네현 고진다니, 가모이와쿠라 유적 등이 있음



고훈 시대(古墳時代)

- 서기 250년~538년 정도를 가리키지만 아스카 시대 초반까지 포함하기도 함.
- 고훈(こふん)은 오래된 무덤을 뜻하는 '고분'(古墳)의 일본어 독음으로, 지배층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각지에 전방후원분 등 대형 고분을 세웠던 시기
- 중국과 한반도를 통해 한자와 유교가 전해진 시기
- 기원전 5~3세기부터 서기 8세기까지 상당수 한반도 출신 이주민이 일본에 정착했는데, 이들은 조몬인이라고 일컫는 열도 원주민 부족들과 이합집산 및 융합 과정을 거치며 일본 전역에 소규모 국가들을 세움.

-
- 야마토는 백제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각종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일본 전역의 부족 국가들을 잇따라 정복하면서 일본 전역을 제패 이후 서기 7-8세기경에 국호를 야마토에서 일본으로 바꿈
 - 고훈 시대에는 규슈 지역에 30여 개의 나라들이 있었음.
 - 이 시기의 일본서기는 역사 기록이 매우 부족해 신뢰성이 매우 낮은 편

고분 시대의 유물과 유적

-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 하비키노시, 후지이데라시에 있는 고분군
- 미쓰데라
유적 : 군마현 다카사키시 미쓰데라마치에 있는 고분 시대의 유적 .
일본 고고학 의 학 사상 처음으로 고분 시대의 지역 수장 (호족)의 거관 유구가 발견된 것으로 유명



아스카 시대(飛鳥時代)

- 기간은 아스카쿄가 세워진 592년(양력 593년)부터 헤이조쿄(나라) 천도인 710년까지
- 아스카(飛鳥)라는 명칭은 그 당시 정치의 중심지가 지금의 아스카 지방이었기 때문에 붙은 것인데, 왜 飛鳥를 아스카라고 읽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음
- 왜(倭)라는 국호를 지금의 일본으로 바꾼 것 또한 이 시대 후반임
- 아스카 시대는 일본이 아시아 대륙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발전하던 때로, 쇼토쿠 태자가 활약하던 시기이기도 함.

-
-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것도 이 시대로, 백제의 성왕이 불상과 경전을 전파하면서 불교가 공인됨
 - 일본이 정책적으로 군사력이 강력한 중국(동진, 송, 제, 양, 진)과 발전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한 시대임
 -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데라 이후에는 호류지, 시텐노지, 호키지, 고류지 등이 건설되는데, 이 시대의 주요한 가람배치인 1탑 1금당식은 구다라요가란(백제양식 가람百濟樣伽藍)으로 불리고 있음

야요이 시대의 유물과 유적

- 교류지: 일본 교토부 교토시 우쿄구에 위치한 일본 진언종(真言宗)계의 사찰. 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대한민국 국보 제83호)과 빼닮은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일본 국보 조각 제1호)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
- 아스카사: 일본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촌에 위치한 일본 진언종(真言宗) 부잔파(豊山派)의 사찰이며, 일본 최초의 사찰임. 아스카 시대 일본의 권신이었던 소가노 우마코가 588년 발원하여 596년에 창건됨



나라 시대(奈良時代)

- 서기 710-794년의 기간. 한반도 남북국시대의 초반기와 겹침
- 이 시기에 일본 역사상 5번째 여성 천황인 겐메이 덴노가 헤이조쿄(平城京)에 수도를 세웠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의 나라 지역에 해당됨.
- 당시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0.7%가 귀족들과 관료들이었다고 함. 헤이조쿄는 강과 너무 멀었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나빠서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염병이 돌곤 했는데, 이것이 후에 천도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됨.
- 대외적으로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마지막으로 대외교류가 활발했던 시대기도 함.

나라 시대의 유물과 유적

- 정창원: 도다이지(東大寺, 동대사) 북서쪽 약 300m 거리에 있는 일본 황실의 창고. 도다이지의 부속 시설로서 일본 황실의 유물 창고로 쓰임. 창건연대는 729년에서 749년 사이로 추정. 한국의 삼국시대 시기의 유물들도 다수 소장하고 있음
- 소지하고 있는 한국의 삼국시대 시기의 유물: 백제의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했다는 바둑판, 바둑알, 민정문서와 제2신라문서, 통일신라의 악기인 신라금 등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 기간은 간무 덴노가 헤이안쿄(현재의 교토)에 천도한 794년부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겐페이 합전에서 승리한 1185년 혹은 고토바 덴노로부터 정이대장군(쇼군)을 제수받은 1192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나라 시대에 확립된 율령제와 토지공령제가 무너진 시기이기도 하며, 끌어올렸던 천황 가문의 권력이 외척에게 넘어갔다가 원정이 전개된 시기이기도 함.
- 일본서기를 제외한 육국사가 이 시대에 편찬됨.

-
- 종교: 아베노 세이메이가 이 시대의 인물이며 금기와 모노노케를 중히 여겼던 이 시대의 풍조를 대변. 이 시대의 귀족들은 뭘 하든간에 음양사에게 길흉을 점치게 했으며, 자신이 있는 곳이 음양도에 따라 불길한 방위라면 잠시 남의 집에 가는 것이 일상사. 또 질병이나 흉사가 모노노케의 짓이라고 생각해 병을 앓게 되면 승려를 초빙하여 경을 읽고 귀신을 퇴치하게 함. 불교도 융성했으며, 거대 사찰들은 귀족들과 황실의 지원을 받아 크게 성장.
 - 문학: 여류 문학의 전성기로 무라사키 시키부, 세이 쇼나곤 등 일본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다수 활동

헤이안 시대에 쓰인 작품들

- 《겐지모노가타리》 : 일본 최초의 고전소설. 인물들의 심리묘사까지 다룬 소설 형태로 보면 세계 최초의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음
- 《헤이케모노가타리》 : 완성된 것은 가마쿠라 시대이지만 내용은 헤이안 시대 막바지의 겐페이 전쟁이 소재.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승리보다도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나 타이라 일족의 몰락을 애잔하게 그리고 있는, 그야말로 판관편애의 전형.
- 《마쿠라노소시》 : 일본 헤이안시대의 궁녀 세이 쇼나곤(清少納言)이 지은 일본 최고(最古)의 수필문학임과 동시에, 당시 여류문학이 융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 헤이케모노가타리
- 고스트 바둑왕(히카루의 바둑)
- 가쿠야 공주 이야기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대. 1185년부터 1333년까지 사가미국(相模国) 가마쿠라에 막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림.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타이라(헤이시, 平) 가문을 물리치고 일본 전국을 제패한 후, 각처에 수호를 설치하고 사가미국 가마쿠라에 막부를 설치하면서 가마쿠라 시대가 시작됨
- 일본에 최초의 무가정권이 들어서서 쇼군 정치가 처음 시작된 시대

-
- 교토의 조정과 지방의 장원·공령은 그대로 두고 지방지배에 지토 등의 형태로 무사가 끼어드는 이원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됨.
 - 가마쿠라 막부가 그 이전의 무가정권인 헤이시 정권과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몬추쇼(問注所)라는 소송 접수 기관을 설치하여 지금까지의 지쇼의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이 당사자간의 무력투쟁으로 쉽게 발전하던 것을 이로써 실질적으로 금지하게 됨.

조큐의 난(承久の乱)

- 가마쿠라 시대의 조큐(承久) 3년(1221년) 고토바 상황이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에 대한 토벌군을 일으켰다가 패배한 병란.
- 조큐의 변(承久の変), 조큐 전투(承久の合戦)이라 불리기도 함. 난이 일어날 당시 싯켄(執權)은 호조 요시토키(北条義時)임.
- 시 무가 정권(武家政權)인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과 함께, 치천(治天)의 군(君)이라 불리던 상황(上皇)을 중심으로 한 교토(京都)의 구계 정권(公家政權)과의 이두정치(二頭政治)가 계속되던 일본의 정치 체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막부에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조정의 권력이 제한되고 막부가 황위계승 등에 영향력을 갖게 되는 등의 변동을 겪게 됨.

겐무

- 1334년부터 1338년까지 사용한 일본의 연호. 한국어 독음으로는 건무이며 이때 고다이고 천황의 군권 회복 이후 신정이 이루어짐.
- 겐무(建武, 건무)의 어원은 중국 후한의 광무제가 사용한 연호임. 광무제가 역적 왕망을 꺾고 한나라를 복원했듯, 고다이고가 고대 일본처럼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로 되돌리겠다(겐무 신정)는 의지를 표현하려 한 것.
- 남조에서는 겐코 이후 엔겐 이전을 이르며, 북조에서는 쇼쿄 이후 라쿠오 이전을 이룸.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 일본의 시대 구분(1336년~1392년)으로 교토를 중심으로 무로마치 막부가 실권을 행사한 북조와 요시노를 중심으로 한 남조가 대립한 시대.
- 일본 역사상 천황이 두 명이었던 시대로 넓게 보면 무로마치 시대의 초창기에 해당하며 보통 고다이고 덴노가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피해 요시노로 피접 간 사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기습적으로 고묘 덴노를 옹립한 1336년부터 북조의 고코마쓰 덴노가 남북조를 통일한 1392년까지를 가리킴.
- 일본 역사에서는 남조와 북조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을 남북조정윤론이라 함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대. 시기는 1392년~1467년.
- 가마쿠라 시대나 에도 시대가 막부가 위치했던 도시에서 이름을 딴 데 비해, 무로마치 시대는 교토 안에서 막부가 위치했던 한 지역 무로마치(室町)에서 유래.
- 막부의 쇼군(천하인)이 아시카가씨(足利氏)였기 때문에 '아시카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함.
- 조선이나 명나라의 사서에서 아시카가 막부의 쇼군을 '원(源)○○'로 부르기도 하여 좀 헷갈릴 수 있으나, 이는 조선과 명나라에 보낸 일본 측 외교문서에서 쇼군들이 자신의 성을 그렇게 칭했기 때문.

-
-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크게 성장하여 훗날 일본의 기틀을 다진 시대. 이것은 신분에 연연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주류 세력인 무가부터가 그리 높은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더불어 오랜 전란으로 인재를 쓸 때 신분으로 가릴 수 없게 된 점 등이 원인.
 - 간토 지방에서는, 이미 센고쿠 시대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1438년 에이쿄의 난, 1454년부터 시작해서 1483년에 종결된 쿄토쿠의 난 등이 그것이다. 이미 오닌의 난 이전부터, 무로마치 막부의 지배권은 약해지고 있었음.

무로마치 시대와 관련된 대중 문화



- 도로로
- 모노노케 히메
- 닌자보이 란타로

센고쿠 시대(戰國時代)

- 무로마치 막부 후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혼란기로, 잘게 쪼개진 수많은 각 세력들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은 시대.
- 천황의 권위가 이미 몇세기 전부터 땅끝으로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오닌의 난으로 인해 쇼군이 수장인 막부의 권위까지 추락하자, 전국 각지에서 개나 소나 다이묘 되고 쇼군 되겠다며 들고 일어나고, 어제의 부하가 오늘의 적이 되는 배신과 하극상이 비일비재하던 시대.
- 기름장수 출신, 병졸 출신, 약재상 출신, 농민 출신 등 미천한 출신의 인물들이 급작스럽게 출세한 시대이기도 함.

센고쿠 시대의 특징

- 농업생산량이 오닌의 난 이전 대비 평균 1.8배로 비약적으로 상승한 시기.
- 유럽의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서양 문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조총과 같은 신무기도 본격적으로 도입됨.
- 여러 불교 종파들도 승병으로 군사력을 구축해 패권 다툼에 끼어듬.
- 같은 일본인들을 외국에 노예로 갖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었음.

센고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창작물



- 오다 노부나의 야망
- 꽃의 케이지
- 귀무자
- 7인의 사무라이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

- 센고쿠 시대 말기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기를 뜻하는 시대 명칭. 시기는 1573~1603년.
- 일본 열도의 통일을 시작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고, 그의 사후 일본을 일시적으로 통일시킨 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이 두 사람의 시대는 특별히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 또는 쇼쿠호 시대(織豊時代)로 칭함.
- 일본사에 있어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시대 중 하나.

주요 사건 연표

- 1568년 오다 노부나가, 교토 상락.
- 1573년 오다 노부나가, 무로마치 막부를 멸함. 오타니 성 전투
- 1575년 나가시노 전투
- 1577년 데토리가와 전투, 시기야마 성 전투
- 1578년 오다테의 난, 미미카와 전투
- 1579년 1차 이가의 난
- 1580년 미키 성 전투
- 1581년 다카텐진 성 전투, 2차 이가의 난
- 1582년 고슈 정벌, 혼노지의 변, 야마자키 전투, 빗추 타카마츠 성 전투, 관백상론, 키요스 회의
- 1583년 시즈가타케 전투
- 1584년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
- 1585년 덴쇼 지진, 시코쿠 정벌
- 1586년 이와야 성 전투
- 1587년 규슈 정벌, 파트레이(선교사) 추방령
- 1588년 정이대장군 제도 폐지
- 1590년 오다와라 정벌(오다와라성 전투, 하치오지성 전투, 오시성 전투), 이중 공의 체제 시작
- 1591년 쿠노헤의 난
- 1592년 분로쿠의 역(임진왜란), 타이코 켄지(태합검지)
- 1596년 게이초 이요 지진, 게이초 후시미 지진, 산 페리페 호 사건, 26성인 순교 사건
- 1597년 게이초의 역(정유재란)
- 1600년 아이즈 정벌, 후시미 성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 정이대장군 제도 부활
- 1604년 게이초 대지진
- 1609년 시마즈 침입 사건
- 1611년 게이초 산라쿠 지진
- 1614년 호코지 증명 사건
- 1614 ~ 1615년 오사카 전투(오사카 겨울 전투, 오사카 여름 전투)
- 1615년 잇코쿠이치조레이(일국일성령), 부케쇼하토(무가제법도),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및 센고쿠 시대 종결

에도 시대(江戸時代)

- 17세기 초,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현 도쿄)를 본거지로 창설한 에도 막부(江戸幕府)가 집권하던 시대.
- 1603년에 정이대장군에 취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고 천하패권을 확립한 1615년부터 1867년 11월 9일의 대정봉환 때까지 약 252년 간 지속됨.
- 일본 역사 전체 기준으로 볼 때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이 이루어졌던 시기,

-
- 일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상업화를 이룩하여 일본 내수 경제의 기틀을 잡은 시기로, 이 2세기 반의 기간이 20세기, 21세기까지 일본 내수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고 유지되는데 큰 기여를 함.
 -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이 있었으나 그 내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했고 농민들이 농노마냥 착취당했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평민들의 생활수준이 국가의 경제력에 비해 열악함.
 - 에도 시대 이전에는 일본의 각지마다 다양한 지역 화폐가 쓰였지만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막부는 화폐발행권을 독점하고 금은동 3종 동전을 기반으로 한 통화양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에도 시대를 다룬 작품



- 지옥락
- 은혼
- 바질리스크
- 바람의 검심

막말(幕末)

- 막말(幕末)은 에도 시대 말기를 의미.
- 쿠로후네 사건이 일어난 1853년 5월 도쿠가와 이에사다 시절부터 대정봉환으로 에도 막부의 폐지와 동시에 일본 제국의 출범, 그리고 1868~1869년의 보신 전쟁으로 신정부가 전국을 장악할 때까지 약 17년간의 시기를 일컫음.
- 이 시기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신센구미가 있음.

막말의 주요 사건

- 쿠로후네 사건(1853):
- 미일화친조약 체결(1854)
-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1858)
- 안세이 대옥(1858~1859)
- 사쿠라다 문 밖의 변(1860)
- 나마무기 사건(1862)
- 사쓰에이 전쟁(1863)
- 시모노세키 전쟁(1863~1864)
- 이케다야 사건(1864)
- 금문의 변(1864)
- 조슈 정벌(1864~1866)
- 삿초 동맹(1866)
- 대정봉환(1867)
- 보신 전쟁(1868~1869)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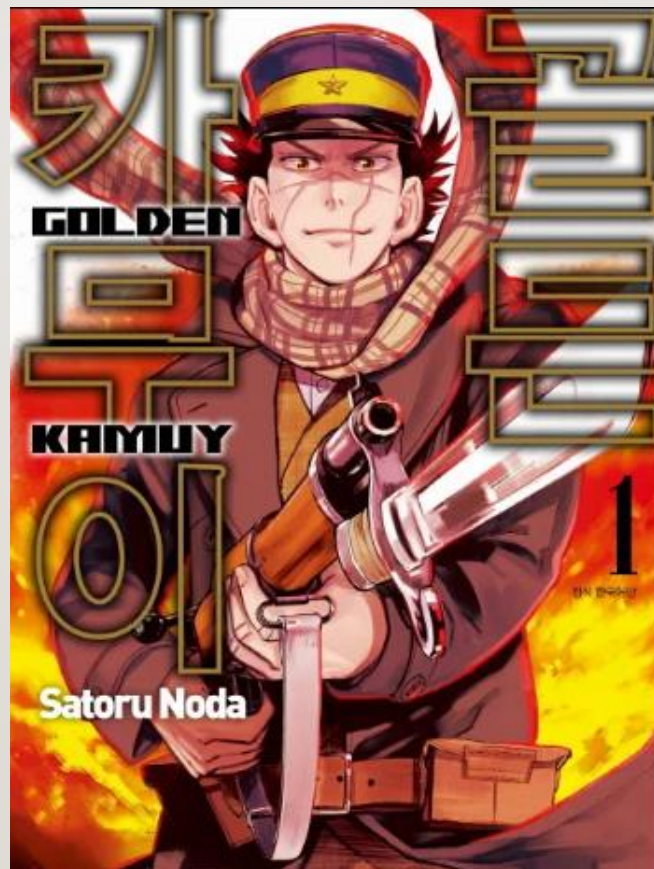
- 메이지 천황이 재위했던 시기에 사용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 서력으로는 1868년 ~ 1912년.
- 유럽의 벨 에포크 시대(1871~1914)와 기간이 거의 일치한다. 한자로는 明治(명치), 전각 문자 한 글자 공간에 넣으면 𐄂.
- 이 시절부터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무쓰히토 천황의 재위기간을 메이지 시대라고 부르며, 무쓰히토 천황을 가리켜 메이지 천황이라고도 부름.

메이지 시대의 중요 사건사고

- 에도(江戸)를 도쿄로 개명 - 메이지 원년(1868년) 10월 13일
- 일본군 창설 - 메이지 4년(1871년) 1월 4일
- 폐번치현 실시 - 메이지 4년(1871년) 8월 29일
- 조일수호조규<朝日> - 메이지 9년(1876년) 2월 27일
- 폐도령 포고 - 메이지 9년(1876년) 3월 28일
- 대일본제국 헌법 공포 -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멸망<植> - 메이지 43년(1910년) 8월 29일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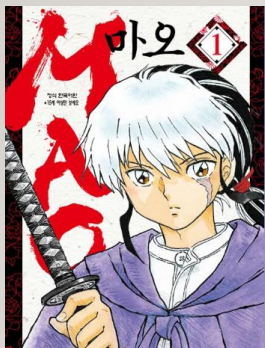
- 귀멸의 칼날
- 골든 카무이



다이쇼 시대(大正時代)

- 다이쇼 천황이 재위했던 시기에 사용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 서력으로 1912년 ~ 1926년.
-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였고 3.1 운동과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문화통치를 거쳤던 시대.
- 연호 '大正'는 <주역(周易)> 단전(象傳) 임괘(臨卦)에 나오는 대형이정 천지도야(大亨以正, 天之道也 바른 것으로 크게 형통하니 하늘의 도라)라는 구절과 <주역(周易)> 단전(象傳) 대축괘(大畜卦)에 나오는 강상이상현 능지건 대정야(剛上而尙賢 能止健 大正也 굳셈이 위에 있어 현명한 이를 송상하여 능히 강건함을 그치게 함이 크게 바르다.)라는 구절에서 유래.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 MAO
- 모노노케
- 로젠 메이든

쇼와 시대(昭和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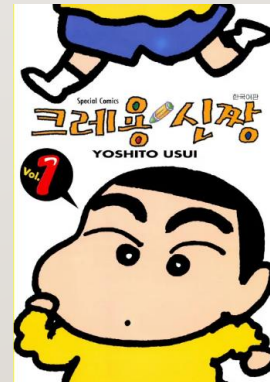
- 1926년 12월 26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 일본의 연호가 쇼와(昭和)였던 시대.
- '쇼와'는 히로히토가 제124대 천황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 사용한 연호로,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 사용됨.
- 일본에는 쇼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낡은 세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음.
-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등 여러 모로 아픔이 많은 시대였지만, 일본에는 최전성기가 쇼와 시대와 겹침.

쇼와 시대의 주요 사건

- 다이쇼 천황 붕어, 장남 히로히토 즉위
쇼와 연호 개원(1926)
- 소련-일본 국경분쟁 발발(1932)
- 중일전쟁 발발(1937)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8월 6일~8월 9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및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군정 시작
8.15 광복(8월 15일)
태평양 전쟁 및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일본군 해산(9월 2일)
중일전쟁 종전 (1945)

쇼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 오소마츠 군
- 마루코는 아홉살
- 짱구는 못말려(크레용 신짱)
- 도라에몽



헤이세이 시대

- 1989년 1월 8일 0시 00분 00초부터 2019년 4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사용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
- 일본의 제125대 천황 아키히토의 재위 기간이었다. 2019년 4월 30일, 고쿄 세이덴 마쓰노마에서 202년 만에 이루어진 당시 아키히토 천황의 생전 퇴위를 끝으로 막을 내림.
- 호가 바뀐 시점이 새해 벽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탓에, 이전 연호였던 쇼와(昭和)와 현재 연호인 헤이세이(平成)를 세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1988년까지의 출생자를 쇼와 세대, 1989년부터의 출생자를 헤이세이 세대라고 부름.

잃어버린 30년

- 헤이세이 시대의 초창기는 많은 일본인들이 그리워하는 일본 경제의 최전성기 즉,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의 정점에 있었음.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거품이 붕괴되고 현재까지도 일본경제를 끈질기게 발목 잡고 있는 장기적인 불황기에 진입하게 됨.
- 일본의 경제학자, 경제평론가들이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렀으나 10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거품붕괴의 악영향이 완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00년대를 잃어버린 20년으로 연장되었다. 일본의 2010년대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초대형 재해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일본을 상징하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수출이 부진해지자 2011년을 시작으로 전대미문의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은 헤이세이사(平成史)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시대'로 단정하고 있음.

레이와 시대

- 현행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 나루히토가 일본의 제126대 천황으로 즉위한 2019년 5월 1일 자정부터 사용됨.
- '레이와(令和)'라는 새 연호는 일본 최초의 운문집인 만엽집(만요슈)의 제5권 매화의 노래 32수의 서문에서 따 옴.

감사합니다.